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135 16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천도교를 중심으로 -

성 주 현

(천도교자료실)

《요약》

본고는 천도교의 교양교육의 역사적 사실과 부산예술문화대학의 교양교육 과정, 그리고 천도교의 입장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시론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천도교의 경우 아직 종단내의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자수대학강의는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와 사상을 사회화·민중화하여 빈궁과 무지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통신 대학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부산에 예술문화대학은 천도교 재단은 아니지만, 인내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천도교적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동학사상을 통한 천도교의 이해와 민족문화의 이해, 나아가 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핵심주제어: 천도교, 자수대학 강의, 인내천, 동학, 청년당

《Abstract》

A Study on An Essay on Cultural Education in colleges - in relation to Chondogyo(天道教) -

Sung, Ju- Hyeon

This write looked for historical reality of cultural education in Chondogyo(天道教), 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in Busan Arts and Culture College(釜山藝術文化大學),

and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as culture education in a viewpoint of Chondogyo(天道教). This essay has limitation because Chondogyo(天道教) doesn't have its own college.

But Self-study college lectures(自修大學講義) of 1930's have a meaning in aspect of the first correspondence course of college education that tries to solve poverty and ignorance by socializing 'Innaechon(人乃天)' of Chondogyo(天道教). Busan Arts and Culture College(釜山藝術文化大學) is not a foundation of Chondogyo(天道教), but it is founded on the basis of Chondogyo(天道教). So this college pursues humanity education through religious education, and it teaches Chondogyo(天道教) and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idea of Donghak(東學). Furthermore, it is trying to preparing for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risis of modern society.

Key words: Chondogyo, Self-study college lectures, Innaechon, Donghak, Youth-Party

I. 문제의 제기

사실 '종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이란 주제의 원고 청탁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이 글을 '어떻게 전개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 천도교의 경우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와는 달리 종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과정의 교육기관이 없는 현실적 한계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은 소위 '연목구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에서 '천도교 교육' 또는 '천도교적 교육'을 교양필수 교과로 이수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천도교의 경우 대학과정의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09년 사범강습소를 설치 운영한 것이 처음이다. 사범강습소의 수업기간은 1년으로 敎書·內外國地誌·內外國歷史·算術·法學通論·經濟學·物理學·作文·體操 등을 교수하였다.¹⁾ 그 후 1922년 문화적으로 개화, 참신하고 향상된 일반인의 교화를 담당할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宗學院 설립, 교육과정으로 本科·豫科·速成科 3과를 두었다. 각과의 정원은 60명으로 본과의 수업기간은 2년, 예과와 속성과는 1년이었다. 교과목은 예과의 경우 교리·교회사·철학개론·국어·영어·한어·수학·지리·역사·음악 등

1 조기주, 『天道教宗令集』,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3, 100쪽.

이었고, 속성과는 교리·교회사·종교철학·종교사·철학·심리학·논리학·윤리학·사회학·생물학·음악 등이었다.²⁾ 당시 종학원의 교과는 교역자로서의 소양을 쌓는데 필요한 교양과정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대학과정의 교양교육은 1933년 천도교청년당에서 전개한 ‘自修大學講義’로 이어졌다. 이 자수대학강의는 대학 수준의 국문 대학교재로서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된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의 대중적 열망과 대학교육에의 민족적 염원을 잘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육과정의 강의록이었던 자수대학강의는 1933년 7월부터 월간으로 총 13권을 내고 중단되었다. 그 후 천도교의 대학 또는 대학과정의 교양교육이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해방 후 천도교단측에서는 대학 설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 다만 천도교 이념으로 설립된 부산예술문화대학이 유일하게 천도교적인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실제 대학 강의실에서 천도교를 어떻게, 무엇을 교수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검토한 바가 없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천도교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주요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본고에서 시도하려는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교양교육의 준거로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천도교 교육의 현실을 검토해보고 천도교 교양 교육의 방향 및 종교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시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교양교육 내용의 선정은 항상 교단과의 기술적인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갖도록 하였으며, 방법의 경우 강의법이 갖는 장점을 보존하면서 교육학에서 응용되고 있는 학습방법상의 이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한계를 인정하고 자수대학강의와 부산예술문화대학의 천도교와 관련된 교양교육을 살펴보고 차원에서 교육내용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리 밝혀두고 싶은 것은 교육학과 관련없는 필자의 연구가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검증을 할 수 없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 「公函 第一號」, 《천도교회월보》통권 139호, 1922. 3, 108쪽;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34쪽.

3 申一澈, 「解題, 自修大學講義의 意義와 內容에 대하여」, 『自修大學講義』, (서울: 경인문화사, 1972).

II. 교육현장-자수대학강의와 부산예술문화대학의 사례분석

1. 자수대학강의

일제하 대학과정의 교육기관을 유지하지 못한 천도교에서는 1930년대 들어 천도교청년당을 통한 黨學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학과정의 통신교육을 시도하였다. 3.1운동 이후 신문화운동⁴⁾을 전개하던 천도교청년당(이하 청년당)은 1933년 4월 4일 제7차 전당대회에서 당세확장 3개년 계획을 설정하였다. 이 계획 중 실천방안의 하나로 ‘당자학(黨自學)’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요항을 마련하였다.

1. 本黨은 人乃天主義의 文化樹立을 爲하야 此에 需應할 專門家를 養成할 目的으로써 黨自學을 設함.
2. 黨自學의 科目은 宗教 哲學 政經 社會 藝術 及 體育의 六部로 함.
3. 黨自學의 年限은 三個年으로 함.
4. 黨自學員 資格은 黨員中으로서 中等程度의 學力과 自學을 堪耐할 決心이 有한 者에 限함.
5. 黨自學志望은 一人一科에 限함.
6. 黨自學 志望者는 所定樣式에 依한 志望書를 該地方黨部를 經由提出하야 黨本部의 許可를 要함.
7. 黨自學 教材는 黨機關紙 其他 通信으로써 提示함.
8. 黨自學 講師는 黨本部에서 指定함.
9. 黨本部는 黨自學에 對한 年中 一次試驗을 行하며 所定年限을 修了한 者에게는 修了證書를 授與함.
10. 各黨部는 黨自學員의 便宜를 爲하야 自學에 必要한 圖書를 備置할 責任을 有함.⁵⁾

당시 청년당은 일제하의 사회적 결함에 대해 첫째로는 인간 삶의 기본인 의식주의 빈궁과 둘째로는 기술지식의 습득의 결핍으로 보았다.⁶⁾ 이러한 빈궁과 무지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인간의 큰 사명이요 임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단 한

4 신문화운동에 관하여는 조기간, 『天道敎靑年黨小史』, (천도교중앙종리원, 1935)를 참조할 것.

5 《黨聲》 제21호, 1933년 5월 1일, 3면.

6 《黨聲》 제23호, 1933년 7월 1일, 1면.

층 앞선 인내천주의와 사상을 사회화 민중화시키며 문화 생활화시키는 것'을 당면과제로 제기하였다. 이에 청년당은 다음과 같이 자수대학강의 간행 목적을 밝히고 있다.

후천개벽 완성은 결국 인내천주의의 새문화가 보급됨에 있고 그리함에는 만저 인내천주의에 독특한 새문화를 수립함에 있고 그리하자면 만저 사상적으로 현대에서 한단 한층으로 앞선 인내천사상을 깃히 붙잡은 지식층의 청년들로 하여금 각히 전문적 학술을 가지게 하라는 것이 대내한 목적이오 대외하야는 중등 정도의 학과를 마치고 학비 관계로 전문이나 대학을 못하는 유위의 청년들로 하여금 집에서나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학비는 극히 적게 들이고도 능히 전문이나 대학 정도의 지식을 엿도록 하라는 것이다.⁷⁾

자수대학강의 요강에 따른 수업기간, 학과 및 교재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업기간 : 자수대학의 수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단기간 내에 대학과정의 교육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1학기 또는 1년 과정으로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3년의 기간은 창당 10주년을 맞는 청년당의 3개년 계획 기간과도 맞물려 있었다. 즉 3년이란 수업기간은 청년당의 3개년 계획에 준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당은 사범양성(師範養成)을 위해 역시 3년의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행하였다.⁸⁾

(2) 학과 : 자수대학의 학과는 종교과·철학과·정치과·사회과·경제과·체육과 등 6개 학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6개 학과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청년당에서 1934년부터 전개한 당학(黨學)에서 교리교사·조선어·조선사·농업·체육 등 5개 학과를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로 후천개벽을 직접 목표로 하는 우리 당이니 만큼 혼의 방면이오, 둘째는 조선 사람이 발견한 진리이며 나은 당이니 만큼 조선 사람 자체를 망각할 길이 없고, 셋째는 산사람으로서의 하로도 생활문제를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오, 넷째로는 생활문제와 아울러서 산사람에게 지중한 문제로는 건강문제이다.⁹⁾

7 《黨聲》 제23호, 1면.

8 《黨聲》 제19호, 1933년 2월 1일, 2면.

9 「黨學을 세우면서」, 《黨聲》 제29호, 1934년 2월 1일, 1면.

당학의 학과 선정 이유로 민족혼, 현실생활, 건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자수대학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즉 민족혼과 관계하여서는 종교과와 철학과, 현실생활은 경제과와 정치과, 건강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체육과 등으로 연관시켜 본다면 자수대학의 학과는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과목당 강사진을 보면 종교과는 이돈화(李敦化), 철학과는 김형준(金亨俊), 정치과는 이정섭(李鼎燮), 사회과는 공탁(孔濯, 孔鎭恒), 경제과는 이금중(李肯鍾), 체육과는 김보영(金保榮)이 각각 맡았다. 그리고 이들 강사들의 학과별 교육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과 : 종교과 강의는 물론 일반적 종교문제도 논하려니와 그 보다도 주로 인간의 본질(人間本質)을 구명하여 새로운 종교에 대한 체계를 세우려는 것.¹⁰⁾

철학과 : 哲學을 연구하는데는 먼저 哲學史의 知識이 必要합니다. 그럼으로 第一年度에는 哲學史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哲學을 思索하는 方法과 그 秩序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哲學概論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第二年度는 哲學概論 이룩케 哲學史와 概論의 知識을 갖게되면 그 때는 特殊問題를 論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第三年度에는 特殊問題로서 歷史哲學 社會哲學 그리고 時間이 잇스면 認識論 宗教哲學에 對한 것을 하겠습니다.¹¹⁾

정치과 : 政治科에 對하여 한말씀 더한다면 人間은 元來 政治的 動物인고로 政治를 떠나서는 언제든지 살 수 업을 것입니다. 차라리 政治 以外의 다른 一般 文化는 或 그것을 一時的으로 떠나서 살 수 잇슬는지 몰우나 政治 그것이야말노 到底히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人間은 반듯이 政治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朝鮮 現實에 잇서는 政治問題를 몰라서는 안될 줄 압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責任맞흔 科目이라 해서 置重하는 말이 안이나 누구나 다갓치 同感하는 문제인줄 압니다.¹²⁾

사회과 : 社會科로 말할지라도 自修大學을 通하여 社會學의 全體를 말할 수 없고 다만 그 輪廓을 말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社會學的 觀察의 態度만 얻게 되면 그 뒤에는 스스로 研究할 수 있습니다.¹³⁾

10 李敦化, 「自己가 教師가 되고 弟子가 되라」, 《黨聲》 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1 金亨俊, 「哲學은 더욱히 多讀과 思索이 必要」, 《黨聲》 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2 李鼎燮, 「朝鮮서는 嚆矢 成功은 自學員의 誠意에」, 《黨聲》 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3 孔濯, 「잘만 利用하면 大學에 出席한거보다」, 《黨聲》 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경제과 : 나의 마튼 經濟學은 일기가 더욱 까다롭고 알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마치 차들을 씹는 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及其他 經濟學이라는 것도 우리가 無意識中 별서 알고 짐작하고 잇는 것을 分類하고 系統을 세워서 한 科學의 體系를 맨드는데 不過한 것이라는 것을 깨다를 수 잇을 것입니다. 갑갑한 것을 참고 꾸준히 연구하여 보십시오. 社會科學은 自然科學과 달리 自修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안을 것입니다.¹⁴⁾

체육과 : 體育을 尊重하는 國民은 興하고 運動을 輕視하는 民族은 亡한다. 튼튼한 몸과 健全한 精神은 우리의 큰 武器이다.¹⁵⁾

한편 자수대학의 과목별 교재는 매월 1회씩 발행하여 총 13권을 발간하였는데¹⁶⁾ 과목별 내용과 체제는 다음과 같다.

14 李肯鍾, 「知識渴求의 不斷한 誠意가 잇는 然後」, 《黨聲》 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5 金保榮, 「우리의 큰 武器는」, 《黨聲》 제23호, 1933년 8월 1일, 2면.

16 자수대학강의는 청년당에서 3년 계획으로 준비하였으나 1년 여 만에 부득히 중단되었다.

종교과	철학과	
제1강: 人乃天의 見地에서 본 宗教의 新定義 제2강: 原始人의 宗教意識과 宗教進化의 概念 제3강: 中國宗教의 概要 甲 中國古代의 宗教思想 1. 道教의 要領 2. 儒教	<西洋哲學史> 緒論: 哲學史란 무엇이나? 제1편 古代哲學史 제1장 총론 제1절 哲學發生의 歷史的 社會的 背景 제2절 古代哲學의 時代區分 제2장 自然論期 제1절 自然論期 哲學의 總觀 제2절 宇宙의 原質問題 제3절 生成問題의 論難 제4절 生成의 說明 (多元論의 綜合) 제3장 人間論期 제1절 人間論期の 總觀 제2절 소쉬-스트 제3절 소크라테-쓰 제4절 프라-톤 제5절 아리스토텔레-쓰 제4장 倫理論期 제1절 倫理論期の 總觀 제2절 스토아學派 제3절 에피큐로스學派 제4절 懷疑學派와 新아가 데미아	제5장 宗教論期 제1절 宗教論期の 總觀 제2절 新피다고라스學派 제3절 피-론 제4절 신피라-톤學派 제2편 中世哲學史 제1장 中世哲學의 總觀 제1절 中世哲學의 社會的 背景 제2절 中世哲學의 歷史的 狀況 제2장 教父哲學 제1절 教父哲學의 成立 過程 제2절 護敎家와 理知派 제3절 아레그산도리아學校 제4절 宗教會議時代 제5절 아우구스티누스 제3장 스코라哲學 제1절 스코라哲學의 成立 過程 제2절 스코라哲學의 成立期

정치과		경제과
제1편 政治學概論	제1장 議會制度의 起源	緒論
제1장 政治學의 概念	제1절 上古 及 中世의 人 民政治	1. 經濟 及 經濟學의 意義
제1절 政治란 무엇인가	제2절 英國議會制度의 樹立	제1편 價值及 價格論
제2절 政治의 目的	제3절 米國議會制度의 創始	제1장 慾望
제3절 政治의 起源	제4절 佛國議會制度史	제2장 財
제2장 國家論	제2장 議會制度의 本質	제3장 效用 及 價值
제1절 國家의 特質	제1절 國民의 代表로의 議會	제1절 效用 及 價値의 意義
제2절 國家의 發生	제2절 國家機構로서의 議會	제2절 效用에 依한 價値의 測定
제3절 國家成立의 過程	제3장 議會의 構成	제3절 非效用(犧牲)에 依한 價値의 測定
제2편 政治組織	제1절 二院制의 存在理由	제4장 價格
제1장 近代의 政治組織의 諸型	제2절 二院制에 있어서 의 第二院의 組織	제1절 價格의 意義
제2장 政治組織과 環境	제3절 二院制에 있어서의 第二院의 權限	제2절 市場과 市場價格의 決定
제1절 地理的 環境	제4장 議會의 權限	제3절 正常價格의 構成
제2절 經濟的 環境	제1절 立法上의 權限	제4절 獨占價格의 決定
제3장 政治組織의 成立過程		제2편 生産論
제4장 日本의 基本政治組織과 政治慣行		제1장 生産의 意義
제1절 基本政治組織		제2장 企業
제2절 政治慣行		제1절 企業의 意義
제3편 議會制度論		제2절 企業의 種類
		제3장 生産資料
		제1절 資料의 意義
		제2절 土地

사회과	예 술 과	체육과
머리말 제1장 社會原理의 基礎 觀念 제1절 社會學的 생각 제2절 社會學的 位置와 範圍 제3절 社會學과 다른 社會科學의 關係 제4절 社會學研究法 제5절 社會學的 法則 제6절 社會成立의 原理 제7절 個人과 社會 제2장 社會의 動力 제1절 社會力 제2절 社會心 제3장 社會의 內容과 組織 제1절 社會와 社會 生活 제2절 社會의 構造와 기능 제3절 社會性 제4장 社會概念 제1절 社會契約說과 社會有機體說 제2절 社會的 文化 제3절 共同社會와 公利社會 제4절 社會連帶性 제5장 사람性論 제1절 사람性 제2절 사람의 固有性 제3절 習慣 제4절 사람性和 社會 生活 제5절 生物遺傳과 社會遺傳 제6장 環境論 제1절 自然과 사람 제2절 自然環境과 社會進化	제3절 自然環境과 社會制度 組織 제4절 自然의 環境의 相對的 價值 제5절 사람主義 제7장 社會進化 제1절 進化의 原則 제2절 生物進化和 社會進化 제3절 사람社會와 증승社會 제4절 社會進化의 法則 제5절 人類의 起源 제6절 社會進化의 條件 제8장 家族의 生活 제1절 家族生活의 社會的 存在價值 제2절 結婚과 性質 제3절 結婚의 여러 가지 形式 제4절 大家族制度和 小家族制度 제9장 政治的 生活 제1절 政治的 組織 제2절 國家의 起源과 進化 제3절 政治力과 및 그 形式 제4절 國家의 性質 제5절 國家形成의 原動力 제6절 主權 제7절 國家의 起源과 作用 제8절 法的 意義 제9절 法律의 社會的 性質 제10절 國家의 社會學的 考察 제11절 民主的 傾向의 發達 제10장 道德的 生活 제1절 道德의 意義 제2절 道德의 要素	1. 藝 術 이 란 무 엇 이 냐? 緒言 제1편 總論 제1장 體育 의 意義 제2장 體育의 教育的 地位 제3장 體育 의 種類 제4장 體育 의 方法 과 分類 제2편 歐米의 體育狀況 제1장 獨逸의 體育 제1절 概況 제2절 社會體育 제2장 瑞典體育 제1절 概說 제2절 體操 제3절 스포-즈

2. 부산예술문화대학

부산예술문화대학(이하 예술대학)은 1994년 '천도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보통교육과 민족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중견 예술전문인의 양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술대학의 경우 비록 천도교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도교의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본절에서는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새로운 변화와 교수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대학의 종학교육에 배정된 수업시간, 학급당 수강인원, 교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수업시간 : 예술대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운영상 교양교육은 1학년은 <인간과 종교>, 2학년은 <동학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과 종교>는 교양필수로 주당 2시간으로 한 학기 동안 이수토록 하고 있고, <동학의 이해>는 선택 과목으로 역시 주당 2시간을 한 학기 동안 이수토록 되어 있다. 한 학기 전부 통산하여 수업이 가능한 총시간은 15주가 된다. 따라서 매주 한가지씩의 주제로 수업을 할 때 10개에서 14개의 주제를 소화하고 있다.

(2) 수강인원 : 수업현실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단위교실에서의 수강인원의 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강의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상정하여 대개 대학에서는 대단위 강의 즉 100명 이상 200명 선까지 한 교실에서 수강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황이었다. 예술대학의 경우는 80명 단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타 대학에 비해 다소 적은 인원이 수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교육이 인성 교육의 성격을 가지면서 인격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소 많은 숫자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한사람 한사람과의 접촉 유지가 가능한 밀도 있는 수업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약 40명 단위의 수강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지적 수준차가 큰 수강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방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 교과와 교과서 : 교과의 경우 1학년은 '인간과 종교', 2학년의 경우 '동학의 이해'로 되어 있다. 이들 교과의 지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과 종교>

종교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여러 문화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종교

간의 이해와 대화의 폭을 넓히고, 종교의 본래의 목적인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다.

세계화의 흐름과 새 천년을 맞아 세상을 보는 안목과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태계 위기와 인간성 상실, 물질 만능, 빈곤, 핵문제, 인권문제 등의 여러 위기 속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상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본다.

<동학의 이해>

19세기말 암울한 시대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나온 동학은 기존의 유불선을 합일하여 시천주와 인내천의 위대한 가르침을 내놓음으로써 이후의 동학혁명, 갑진개화혁신운동, 3.1 운동 등 한국근현대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수운 선생의 시천주와 개벽사상, 해월 선생의 삼경과 향아설위 등의 사상은 이 위기의 시대에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해월신사 법설을 중심으로 동학의 사상과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이 시대의 문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인간과 종교>에서는 종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특히 종교 다원주의의 현실에서 편협한 종교관에서 벗어나 종교간의 이해와 대화를 중시하고,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함으로써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겸하고 있다는 점과,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관심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중시한 점도 눈에 띈다.

<동학의 이해>에서는 동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천도교의 교리나 의례 등 종교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로 동학 사상을 중심으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학 사상을 통한 이 시대의 위기와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보조자료적 위치로 만족해야 한다는 이론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학문영역에서 거론되는 복잡하고 새로이 대두되는 개념적 용어와 전체 구조 개념 등을 정리하는데는 필수적인 내용이나 자료가 담겨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양교육의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분량이 적으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강생에게 필요한 세부적이고 풍부한 현상적 역사적 사실과 이론적인 교육은 교과서 밖의 자료를 수업에 적용시킴으로써 대치될 수 있도록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예술대학의 교재 및 참고서적은 다음과 같다.

<인간과 종교>

-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종교(길희성/민음사/1994)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J.헤센/서광사/1995)
종교의 의미와 목적(일프레드 캔트웰스미스/분도출판사/1991)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동학연구소/예문서원/1999)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동쪽나라/1999)

<동학의 이해>

- 천도교 경전(천도교 중앙총부/1993)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동학연구소/예문서원/1999)
예감이 가득 찬 숲 그늘(김지하/실천문화사/1999)
사람이 하늘이다(오문환/솔출판사/1996)
동학의 이해(신일철/사회비평사/1995)

그리고, 교과별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과 종교>

-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다원주의의 이해
종교의 기원
종교의 본질
현대인과 종교생활
종교체험과 종교현상
한국의 종교 종교와 예술
종교와 문화
새로이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
뉴에이지 혁명 생태계 위기와 지구 윤리
21세기의 새로운 윤리
새로운 시대의 여성의 역할
패러다임의 전환
종합 토의

<동학의 이해>

동학이란 무엇인가

수운최제우의 생애와 사상

해월 최시형의 생애와 사상

의암 손병희의 생애와 사상

동학 운동사(동학혁명, 3.1운동, 신문화운동)

동경대전 포덕문

동경대전 논학문

동경대전 수덕문

동경대전 불연기연

용담유사

해월신사 법설 - 천지부모, 대인접물

해월신사 법설 - 수심정기, 성경신

해월신사 법설 - 내칙, 내수도문

해월신사 법설 - 향아설위

무체법경의 이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종교>에서는 포스트 모던의 다종교 사회에서의 열린 자세를 강조하는 책과 종교의 본질을 되새기고, 인생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교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점은 한 종단의 교리를 배타적으로 교육하는 타 대학의 종교교육과는 구별되는 점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학의 이해>에서는 동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주로 동학의 주요 사상을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 교단 내에서나 학계에서도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학의 소개 책자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과서 채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쉬운 교재 개발이 앞으로 교과 운영을 위한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한편 강의법으로는 대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수업형을 극복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問答法¹⁷⁾, 討議法¹⁸⁾, 視聽覺法¹⁹⁾, 問題解決

17 문답법은 질문과 응답에 의해 학습이 전개되는 방법이다. 소크라테스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反問에 의해 높은 차원의 지식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18 討議法은 토의를 학습수단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이다. 집단적 사고에 의해 논리적 조직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제기하여 높은 차원에서 결론을 얻으려는 방법이다. 또 사

法²⁰⁾, 構案法²¹⁾ 등을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강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지적 수준에 맞고 적은 수업시간 내에 종교와 동학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이해가 가능한 과제를 취급하면서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면 예술대학의 종교 교양 교육의 운영은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양한 종교의 이해와 타종교간의 대화와 화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천도교적 교양인의 양성보다는 동학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위기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III.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종교교육의 방향

대학의 교육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를 내기는 어렵지만 흄볼트는 ‘무한한 진리 탐구의 장소이고 대학의 본질이 학문 연구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²²⁾, 유상진은 대학과 대학교육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학이란 본질적으로 총체적인 학문의 전당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한 종합대학 안에 있는 여러 대학 또는 여러 학부가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신을 계발하고 시정하고 세련된 지식을 얻게 하고, 그 지식을 음미하며 배우고 지배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다스리는 힘과 적응하는 능력과 방법, 정확한 판단력과 현명한 예지와 숙련된 유창한 표현 따위를 교육하는 것이다.²³⁾

고를 풍부히 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비롯하여 명확한 의사전달능력, 자기고집을 버리고 남을 수용하려는 태도, 분석, 비판하여 수용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 대학의 경우 매우 중요시된다.

19 視聽覺法은 언어적 경험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20 問題解決法은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연구 조사 분석 비판하는 창조적인 활동과 반성적인 사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21 構案法은 문제해결방법이 발전된 것으로 학습자 자신이 어떤 목적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방법이다.

22 반덕진, 『대학과 교양교육』, 1999, 203쪽.

23 유상근,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1986), 157- 162쪽.

또한 전통적으로 대학의 교육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중시할 것인가, 전문교육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의 역사와 함께 오늘날까지 논의되어 오고 있다. 대학의 출발점이 되는 중세의 교과과정을 보면 논리학, 문법, 수사학,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 교양과목을 주로 가르쳤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그리고 20세기 실용주의 학문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대학은 교양교육보다는 직업교육장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변화는 오늘날 대부분 직업 전문교육의 이념과 인문교양교육의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²⁴⁾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은 고대 희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변천해 왔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요소이다.²⁵⁾ 교양교육에 대한 어원을 살펴볼 때 ‘Liberal’이란 말은 라틴어 ‘liber=a free man’에서 온 것으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여기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마음의 참된 본성에 따라서 마음을 자유케 하고 착오와 환상으로부터 이성을 자유케 하며 거짓으로부터 인간행동을 자유케 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²⁶⁾ 이는 자유교육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²⁷⁾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에는 보편교육의 원칙이 추가되고 있다. 보편교육은 교육내용이 한 특정한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이러한 자유교육과 보편교육의 이념을 지니고 있는 교양교육은 ‘인간을 열려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파악하며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인간 존재를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 점과 ‘개인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지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한다’는 점의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문화전반에 관련된 소양과 사람됨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재는 대부분 서양의 교육과정을 전거로 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서양보다는 동양, 더욱이 한국에서 교양교육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

24 반덕진, 『대학과 교양교육』, (서울: 신광출판사, 1999), 369쪽.

25 송석우, 『대학 교양교육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18쪽.

26 송석우, 앞의 책, 24쪽.

27 반덕진, 앞의 책, 371쪽.

28 반덕진, 앞의 책, 374쪽.

불기(君子不器)라 한 바 있다. 군자란 특정분야에 능숙한 전문가가 아니라 폭넓은 식견과 인품까지도 함께 갖춘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적 교양교육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가감, 조선의 성균관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신라의 화랑오계나 조선 성균관의 ‘지정의를 겸비한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성숙된 인간’ 즉, 성인 군자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²⁹⁾은 바로 한국의 심성을 담고 있는 교양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앞으로의 교육학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종교교육은 크게 종단교육과 종교문화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단교육은 특정 종교의 신념체계에 입각한 인간의 완성을 위한 교육이며, 종교문화교육은 종교 일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교육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앙은 물론 사회 문화 정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종단교육은 종단의 대내교육과 대외교육으로 구성되며, 대내교육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평신도를 위한 신앙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학교나 승가대학 등의 특수전문교육기관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것이며, 평신도 신앙교육은 교회의 주일학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종교단체에서 신앙활동을 포함한 자체교육을 의미한다. 대외교육은 일차적으로 선교활동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겐 각 종단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³⁰⁾ 그리고 종교문화교육은 종교학 또는 종교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의 이해를 그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종교교육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양교육과 종교교육은 시대에 따라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서로 추구하는 것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각 교단 또는 종교이념에 의해 설립한 대학의 종교교육은 대부분 선교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경우 현재 교양과정 학점비율을 30%로 한정, 전공을 위한 도구과목으로의 전략, 시간강의 의존, 과밀학급 및 시설의 미비 등으로 대학의 정체성 위기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양교육의 위기는 결국 인간성의 위기로 직결된다.

한편 종교교육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 종단마다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각 종단에서 운영하

29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139쪽.

30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 한국종교학회, 1986, 7쪽.

거나 종교이념을 표방하는 대학의 종교와 관련된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1 교단별 종교교양과목의 현황

종 단	교 양 과 목
기독교	채플, 기독교와 현대사회, 기독교와 사회복지, 구약성서와 역사, 인간과 기독교, 기독교 교리와 윤리, 성경개론, 기독교 대학과 학문, 기독교와 현대윤리, 기독교와 창조과학, 기독교와 경제생활, 기독교와 현대문명, 기독교와 정신건강, 기독교와 문화, 성서의 이해, 기독교와 인간교육, 기독교의 본질, 창조론과 진화론,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와 타종교, 신앙과 실천, 기도교윤리, 현대인과 기독교, 성서와 기독교, 성서와 현대사회, 기독교와 역사, 현대기독교사상, 현대인과 성경, 기독교와 문학, 기독교와 교육의 이해, 성경과 과학, 기독교음악의 이해, 기독교사상의 이해,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와 현대문학, 성서의 세계, 성서와 문학, 기독교와 인간
불교	불교와 인간, 불교와 사회, 자아와 명상, 심학과 실수
유교	유학사상
원불교	종교와 원불교, 현대사회와 종교, 선과 인격수련, 현대사회와 선
대순진리회	대순철학
천주교	그리스도교개론
천도교	동학의 이해

위의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교육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교문화의 이해보다는 종교의 선교과정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교목적의 종교교육은 각 종교가 추구하는 인간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이상 인간 모델들이 얼마나 상호배타적인 개념인가 하는 점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의 선교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윤이흠은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교육은 사회를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팽창주의적 선교 교육을 넘어서 이웃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다종교 상황의 현대사회 규범을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종교문화교육의 교육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교육, 즉 종교학의 보급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종교의 객관적인 이해, 곧 종교학의 보급은 종단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문화정황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보다 성숙된 선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정비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반지성적 독단론과 폐쇄성을 넘어서 다원가치 사회에서의 균형있는 개방 사회를 창조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³¹⁾

따라서 앞으로의 종교 교육은 팽창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교육을 넘어서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나아가 연대적 활동을 통한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양인 양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IV. 천도교 종교 교육의 방향

천도교의 경우 교육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가르친다’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하고 있다.³²⁾ 여기서 가르친다는 의미는 천도가 지니고 있는 ‘종교성의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세명은 ‘인간의 개량(교육:필자)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있어서는 인간을 개량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개량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인간만 개량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개량될 것으로 보아도 망발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종교에 있어서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르침, 즉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는 또한 “天道의 가르침에 의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한울님을 모시게 되면 자연히 게으름뱅이가 부지런해 질 것이며, 거짓말쟁이가 진실해 질 것이며, 더럽던 사람이 깨끗해 질 것이며, 유약하던 사람이 용감해 질 것이며, 욕심쟁이가 욕심이 없어질 것이며,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 질 것이며, 허약한 사람이 건강해 질 것이다. 그리하여 아주 수준이 낮던 사람이 수준높은 인격인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

31 윤이흠, 앞의 책, 10쪽.

32 수운 최제우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통해 ‘가르친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너를 세상에 내어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니’, ‘물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洞開重門하여 두고 오는 사람 가르치니 不勝勘當되었더라’, ‘무극한 이내 도는 내 아니 가르쳐도 운수있는 그 사람은 차차차차 받아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남의 師長되는 법으 來者不拒아닐런가. 가르치기 위주하니 그밖에 무엇이며’.

였다. 천도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이념은 시천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즉 사람의 교육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여도 그 속에는 인간이라는 요소와 교육의 기준이라고 하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³³⁾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대부분 선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종교교육의 극복을 위해서 종교적 이해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해 본 교양과정의 종교교육의 내용은 인간과 종교를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종교인으로서 참된 삶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은 대학생들이 지식과 경쟁위주의 편중되고 협소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 심성을 교양시킴과 아울러 종교적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새로운 측면에서 종교교육, 인간교육이 종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대학의 종교교육은 이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술대학의 경우 천도교적 교양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1학년 과목에서는 주로 종교간의 이해와 인성교육에 주안점이 있고, 2학년 교육에서는 천도교라는 종교의 이해보다는 동학 사상에 그 초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예술대학이 천도교의 종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천도교의 종교 교양을 강의하는 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으로 천도교의 과제이다. 따라서 논자는 천도교에서 대학을 운영해서 교양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인간과 종교의 이해, 그리고 천도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한편으로 다양한 종교의 사상적 본질의 분석이 필요한 교양교육의 교과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정리와 문제중심의 수업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선 교양교육으로서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는 한계, 그리고 교양교육의 원리면에서 제시되는 인간과 종교, 종교교육의 문제 선정기준의 원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문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학습능력, 종교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감안되어 내용이 설정되었을 때, 대학의 경우는 미래를 전망할 문제에 대한 해석과 탐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참고할 수 있는 개설서와 이에 관한 보충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 사실이라도 새롭게 지각될 수 있는 내용의 문제이어야 한다. 넷째, 인간적인 접근이 가능한 교양교육 문제이어야 한다. 특히

33 노태구, 「다종교사회와 천도교 교역자 양성」, 《종교교육학회연구》 8, 1999, 149-150쪽.

종교의 신앙적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다섯째, 역사적 실체적 주체로서 민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제한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천도교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14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보았다.

(1) 창도배경

동학의 창도 배경은 17.8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 사상적 동향과 경제제도의 문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동학의 창도와 어떠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동학 창도의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돈화의 『천도교창건사』·『천도교사전』과 오지영의 『동학사』를 비롯하여 천도교중앙총부의 『천도교백년약사(상)』, 조동일의 『동학성립이야기』 외에 연구논문으로는 이현희의 「수운의 개혁사상 연구-동학사상의 배경과 인류구원사의 의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신국주의 「동학에 관한 연구」(『조용각화갑송수기념논총』), 신복룡의 「동학사상의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학술지 28』, 건국대) 등이 있다.

(2) 창도과정

창도과정은 천도교의 교조인 수운 최제우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사상의 형성 등을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 고찰하는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창도 배경의 자료들이 대부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 외 표영삼의 『동학의 창도과정』과 「동학교문의 성립과정」(『한국사상』 23), 「수운 대신사의 생애」(『한국사상』 20), 최동희의 「수운의 생애」(『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동학의 문화적 배경과 신앙내용」(『한국사상』 23)·「수운의 기본사상과 그 상황-사상형성의 과정을 중심으로」(『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신일철의 「최수운의 역사의식」(『동학사상과 동학혁명』), 김광일의 「최수운의 종교체험」(『한국사상』 12), 조용일의 「근암에서 찾아본 수운의 사상적 계보」(『한국사상』 12) 등이 있다.

(3) 전통신앙과 동학(천도교)

전통신앙과 동학은 19세기 말 창도된 동학이 한국의 전통사상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상적 연원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할 자료가 그리 많지 않으나 최동희의 「한국전통신앙과 동학」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과 송호수의 「한국전통사상과 동학」(『증산사상연구』 6) 등이 불만하다.

(4) 동학(천도교)사상

동학사상은 동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신관, 역사관, 인간관, 윤리관, 경제관, 교육관 등 사상적 이해와 동학혁명, 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개혁운동을 전개한 사상적 기저의 바탕을 찾아보기 위해 설정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도교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기저로 하여 개설서인 『천도교의 교리와 사상』, 신일철의 『동학사상의 이해』(사회비평사), 표영삼의 「대신사와 동학사상」(『교사교리연구』 4), 백세명의 『동학사상과 천도교』, 신복룡의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김경재의 「최수운의 신관념」(『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윤경로의 「동학의 세계사상적 의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김용준의 「동학의 인간관」(『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노태구의 「동학의 정치사상」(『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이항녕의 「동학의 우주관」(『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임운길의 「동학의 내세관」(『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손인수의 「동학의 교육관」(『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등이 있다.

(5)경전의 편제와 내용

경전의 편제와 내용은 동학의 창도 후 수운 최제우에 의해 집필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체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담겨져 있는 동학의 본질을 추출하는데 과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천도교경전』이 가장 기본이 되며 백세명의 『천도교경전해의』, 김인환의 『동학의 이해』(고려대출판부)·『최제우작품집』(형설출판사), 남만성의 『동경대전』(을유문고), 『수운 최제우와 동학사상』(지하철문고), 김월해의 『천도교경전해의』, 윤석산의 『동경대전연구』·『용담유사연구』, 김철의 『동학정의』, 유경환의 「동학가사의 심층분석」(대한출판공사) 등 단행본과 김경탁의 「동학의 동경대전연구」(『아세아연구』 14-1), 박맹수의 「동경대전에 대한 기초적 연구」(『정신문화연구』 34) 등이 있다.

(6) 스승님의 행적과 사상적 추이

스승님의 행적과 사상적 추이는 교조 수운 최제우에 이어 동학교단을 이끌어 온 해월 최시형과 의암 손병희의 행적과 사상적 발전이 어떠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는가를 설정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산의 『도원기서(번역본)』(문덕사), 최동희의 『위대한 한국인 해월 최시형』(중앙서관), 『의암손병희선생전기』(의암손병희기념사업회), 이현희의 『손병희-민족없이 구도도 없다』(동아일보사), 박맹수의 「해월 최시형의 초기 행적과 사상」(『청계사학』 3), 이광순의 「최시형-근대화의 형안」(『한국인물사』 5), 이이화의 「인과 신의 차이-최시형의 역사적 재평가」(『역사비평』 2), 정진오의 「손병희의 정치사상연구」(『논문집』 22), 최동희의 「해월선생의 생애와 사상」(『신인간』 370) 등이 있다.

(7) 동학혁명

동학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민중으로부터 반봉건 반제국주의적인 의식과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동학혁명이 발생한 19세기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전개과정, 역사적 의의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동학과 동학혁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연구동향에 대한 것으로서 김상기의 『동학과 동학란』, 한후근의 『동학과 농민봉기』, 박맹수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연구 동향과 과제」(『박성수 화갑논총』), 안병욱의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현황」(『한국근현대사입문』), 우윤의 「고종조 농민항쟁,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한국사론』 25)가 있으며, 동학혁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신용하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우윤의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최현식의 『갑오동학혁명사』, 한국역사연구회의 『1894년 농민전쟁연구』 1-5가 있다. 그리고 지역적 연구성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학혁명의 배경으로는 한후근의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로서는 김용덕의 「동학혁명운동의 성격」(『한국사의 재조명』), 이광순의 「갑오동학혁명의 정신사적 의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임종철의 「동학혁명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동학사상과 동학혁명』), 동학과 동학혁명과의 관계로는 김창수의 「동학혁명운동과 동학교문」(『동학사상과 동학혁명』), 박맹수의 「동학혁명에서의 동학의 역할」(『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등이 있다.

(8) 갑진개혁운동

갑진개혁운동은 동학혁명 이후 동학교단이 전개한 민회운동으로 흑의단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한 민족운동이다. 그러나 이용구의 일진회 등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한일합방 전까지 동학교단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종의 「갑진개화혁신운동의 진말」(『한국사상』 12), 백세명의 「갑진혁신운동과 동학」(『한국사상』 6), 형문태의 「1904, 05년의 동학운동에 대한 일고찰」(『사학론지』 4,5) 등이 있다.

(9) 조직의 변천

천도교의 조직은 초기 접주제를 비롯하여 육임제, 포·접제, 중앙총부의 설립 등으로 초기에는 동학의 포교와 동학혁명 기포의 기본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중앙총부 설립 이후에는 근대식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3.1운동이나 신간회운동 등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조직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학 조직의 변천을 살펴보고자하는데 과제를 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기주의 『천도교종령집』, 최기영의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대한 검토」(『한국학보』 76), 성주현의 「중앙총부의 조직변천에 관한 고찰」(『신인간』 567, 568), 장기운의 「천도교의 직제변천」(『신인간』 391) 등이 있다.

(10) 애국계몽운동

개항 이후 천도교의 입장에서 사회개혁을 주장한 개혁운동의 하나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여 실력양성론을 주창하였다. 이 시기 천도교가 참여한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대한협회와 만세보 발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영의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연구현황과 전망」(『한국사론』 25), 유영렬의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등이 있다.

(11) 3.1운동

1910년 일제의 병탄으로 식민지가 된 후 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해 투쟁한 핵으로 3.1운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3.1운동의 계획과 전개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천도교를 중심으로 중앙을 비롯하여 지방에서 전개한 만세운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설정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도교와 관련하여서는 3.1운동 80주년을 맞아 신인간사에서 특집으로 다룬 「천도교의 지역별 3.1운동사」(『신인간』 584-592)를 비롯하여 이현희의 『3.1혁명, 그 진실을 밝힌다』, 박현서의 「3.1운동과 천도교계」(『3.1운동50주년기념논집』)가 있으며, 3.1운동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은 김진봉의 『3.1운동』, 신용하의 『3.1독립운동』, 윤병석의 『3.1운동사』, 연구사에 대해서는 김창수의 「3.1운동연구사론」 등이 있다.

(12) 신문화운동

신문화운동은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연장으로 3.1운동 이후 천도교청년당에서 전개한 문화운동으로 천도교 이념의 사회화를 위한 실천운동이었다. 신문화운동으로 월간 『개벽』을 비롯하여 『조선농민』·『농민』·『어린이』·『학생』·『부인』·『신여성』 등 출판문화운동을 비롯하여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문맹퇴치운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신문화운동의 이념적 기반인 천도교 사상과 이를 사회화한 원동력을 밝히는 것이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문화운동의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기간의 『천도교청년당소사』를 비롯하여 조규태의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연구』(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임형진의 『동학과 천도교청우당의 민족주의연구』(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정용서의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정치경제사상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한국사연구』 105)조규태의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충북사학』 9), 이연복의 「천도교청년당의 신문화운동」(『한국사상』 12), 윤석중의 「천도교소년운동과 그 영향」(『한국사상』 12), 인권한의 「개벽지의 문학사적 고찰」(『한국사상』 12), 조동걸의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등이 있다.

(13) 일제하의 민족운동

일제하 천도교는 동학혁명과 3.1운동에 이어 줄기차게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고려혁명당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신간회, 조국광복회, 오심당, 멸왜기도운동 등 일제의 항거한 천도교의 민족운동은 보국안민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사상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동학의 민족관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시대별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수의 「고려혁명당의 조직과 활동」(『산운사학』 4), 조규태의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국사관논총』 89), 성주현의 「1930년대 천도교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연구」(『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조규태의 「천도교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 유준기의 「6.10만세와 천도교」(『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신간회와 천도교」(『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이현희의 「멸왜기도운동」(『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등이 있다.

(14) 분단과 통일운동

분단과 통일운동은 해방 후 남북분열저지운동인 3.1재현운동, 영우회운동 등 천도교의 통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아 천도교의 통일이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1재현운동지』(신인간사), 『영우회비사』, 오익제의 「통일운동과 천도교」(『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천도교 통일운동전개과정」(『신인간』 592- 599) 등이 있다.

이외에 <인간과 종교>라는 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14강을 설정하여 보았다.(강의 목적은 생략)

제1강 한국사회와 종교교육의 필요성

제2강 다종교 사회와 인간

제3강 종교인의 삶과 과제

제4장 종교와 사회규범

제5강 동양의 종교사상의 원형과 발전

제6강 서양의 종교사상의 원형과 발전

제7강 한국의 종교사상의 원형과 발전

제8강 경제윤리와 종교

제9강 민족과 종교

제10강 동학 천도교의 사상적 이해

제11강 동학 천도교의 개벽운동의 이해

제12강 21세기와 종교문화(특강)

제13강 종교현상과 체험(현장학습)

제14강 참된 종교인과 창조적 삶의 추구(주제발표)

V. 결론

이상으로 천도교의 교양교육의 역사적 사실과 부산예술문화대학의 교양교육 과정, 그리고 천도교의 입장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시론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천도교의 경우 아직 종단내의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자수대학강의는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와 사상을 사회화 민중화하여 빈궁과 무지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통신 대학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부산예술문화대학은 천도교 재단은 아니지만, 인내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천도교적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동학사상을 통한 천도교의 이해와 민족문화의 이해, 나아가 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술대학은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므로 다른 대학에서처럼 교역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도 불가능하며, 교양 교육에서도 천도교를 직접적으로 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타 종단이 지나치게 선교적 차원에서 교양 교과를 운영하는 데 비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팽창주의적인 선교의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천도교는 민족종교의 만형으로서, 오늘날 외래 사상에만 전도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민족 정신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우리에게도 한국적 정신과 사상이 있으며,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천도교에서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면 위의 교과내용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이것은 시론적 차원의 제시일 뿐이고, 앞으로 천도교 종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천도교의 종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쉬운 교재 개발과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적극적 홍보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自修大學講義』

조기간, 『天道敎靑年黨小史』, 천도교중앙종리원, 1935.

《黨聲》

《천도교회월보》

노태구, 「다종교사회와 천도교 교역자 영성」, 《종교교육학회연구》 8, 1999.

반덕진, 『대학과 교양교육』, 서울: 신광출판사, 1999.

송석우, 『대학 교양교육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유상근,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1986.

윤이흠,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 한국종교학회, 1986.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조기주, 『天道敎宗令集』,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3